

담양군, SNS로 소통행정 강화에 나서

담양군은 오는 16일부터 3주간에 걸쳐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홍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SNS로 소통하는 담양'을 주제로 SNS활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SNS의 활용 범위가 다양해지고 정보의 확산과 파급력이 확대되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전 직원이 스마트폰 SNS를 활용해 행정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군정의 주요현안과 정책사항에 대한 대응능력을 배양하고자 마련됐다.

전 공직자 대상으로 SNS홍보 역량강화
오는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 교육 실시

이번 교육과정은 총27회에 걸쳐 개인별 맞춤형 학습형태로 담양군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등에 전 직원 친구맺기를 시작으로 SNS홍보 채널의 다양한 기능과

특징을 이해하고 알아두면 좋은 스마트 팁(Tip) 소개, 손쉽게 올릴 수 있는 이미지 편집기법, 다양한 효과 연출이 가능한 동영상 제작기법 등의 알찬 내용으로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SNS홍보채널을 통해 담양군정의 현장소식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공직자들의 정보화능력 배양과 평가를 위한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를 오는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다.

담양=박종영 기자



여수시, 첨단신소재산업 육성 노력

문대통령 공약·첨단소재 개발 플랫폼 구축 용역보고회

여수시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첨단신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12일 오전 시청 상 황실에서 여수국가첨단 연관단지인 산동지구에 미래 첨단화학소재 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투자유치위원과 전문가, 공무원 등 15명은 지난 7월 말부터 진행된 용역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시는 국비지원을 통해 여수에 첨단화학소재 개발 플랫폼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한국화학연구원과 지난 7월 5개월 일정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주요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의 R&D 사업과 4차 산업의 핵심인 인공지능 융합기술(빅데이터 등) 등 첨단신소재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을 연구하는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7일 산동지구에 국·도비 등 총 214억 원을 투입해 CO2 고부가가치 사업화 플랫폼을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전남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과 체결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산동지구가 신소재를 활용하는 R&D 사업단지로 조성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도록 국비 지원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여수시 "걷기운동은 혈관 건강 만병통치약"

19일 혈관튼튼 건강걷기 대회

여수시가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14번째 혈관튼튼 건강걷기 대회를 진행한다.

이번 대회는 오는 19일 소호요트 마리나를 출발해 동동대리를 거쳐 선소광장을 반환점으로 돌아오는 5km 코스다.

참가대상은 고혈압·당뇨병 환자와 고위험군 가족 등 200명이며 17일까지 시 보건소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061-659-4368, 4194)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시는 참가자들에게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홍보하고 행정권 추천과 함께 원주자에게는 기념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2013년 시작된 건강걷기 대회는 지난 5월 13회까지 총 2600여 명의 참가실적을 올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루 30분 이상의 걷기 운동은 고혈압과 당뇨병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라며 "시민들이 걸기를 생활화 해 혈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고혈압과 당뇨병의 자가 관리 지원을 위한 상설교육장 운영, 혈압·혈당 측정기 무료 대여, 눈 합병증 검진비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수=송기홍 기자



장흥 청태전, 테이블셋팅으로 감동 연출

전통발효차 심화과정 '발효차 티파티 플랜' 교육 실시

장흥군은 지난 11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전통발효차 심화과정 '발효차 티파티 플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청태전차연구회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교육은 천년전통 청태전 등 발효산업 6차산업 개발을 위해 마련됐다. 테이블셋팅은 음식을 매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감동 있는 테이블 연출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을 발견하고 나아가 공동체에 대하여 이해하고 생활의 활력을 얻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교육생들은 10월 24일 대한민국 통합의화합대회장에서 개최되는 청태전 날들이 축제에 참여하여 직접 청태전 차지리를 준비하여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전통차 청태전을 선보일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전통차 심화과정 교육을 통해 청태전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계승할 것"이라며, "또한 전통차의 다양한 응용 활용법을 전파하여 실생활에서 차문화를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종민 기자

장흥군,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

장흥군은 시설 입소자와 보호자, 지역주민에게 숲을 통한 휴식과 정서적 안정 제공을 위해 복지시설 나눔숲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나눔숲은 노인요양시설인 정남진 노인요양원에 7천만원의 녹색자금(북관위원회, 산림청, 산림복지진흥원 후원)을 들여 완성했다.

이번 나눔숲 조성을 통해 노인요양시설이 밝고 건강한 시설로 탈바꿈하고 입소 어르신들의 산책 코스

도 마련됐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들을 위해 정지(파고라)는 별도로 경사로를 설치해 누구나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설계에도 공을 들였다.

또한 기존의 열악한 녹지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소나무를 비롯해 이팝나무 등 11종 1,375주를 심었으며, 부족한 수량은 정흥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무은행에서 이식을 받았다.

장흥=김종민 기자

'가고 싶은 섬' 진도 판매도서

내일부터 '메밀꽃 축제' 개막

메밀꽃 단지 23ha 조성·체험·장터 마당 등 진행

진도군은 '2017 가고 싶은 섬 판매도 메밀꽃 한마당 축제'가 14일부터 1박2일간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인 조도면 판매도 일원에서 열린다고 12일 밝혔다.

메밀꽃 축제는 농업경관자원인 메밀을 주제로 23ha 규모로 조성된 판매도 일대에서 체험마당과 장터마당 등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체험마당은 메밀 음식 시식회로 메밀묵·메밀떡과 과자 만들기 등이 열리며, 율농이와 재기차기 등 관광객들과 하나되는 전통 민속놀이 등이 펼쳐진다.

장터마당에서는 청정 조도면 판매도에서 생산된 쌀과 미역 등 지역농산물 판매를 위한 로컬푸드 장터 등이 운영된다.

또 축제 참여자들에게는 메밀가루와 메밀차 등이 무료로 제공된다.

'가고 싶은 섬 메밀꽃 한마당 축제'는 지역별 특색

있는 작물 재배와 판매 8경 등 마을경관보전 활동을 통해 어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하고, 이를 지역축제와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한다는 취지이다.

진도군 조도면에 속해 있는 국립공원 1호 명품마을인 판매도는 진도항(괘목항)에서 여객선으로 1시간30분 정도 소요된다.

마을 곳곳에 민박이 있어 편안한 숙박도 가능하지만 캠핑, 트레킹,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울 가을 누구나 한번쯤은 찾아가 볼 만한 섬이다.

특히 지난 2015년 전남도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판매도 해변에서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석양은 독특한 섬의 가치를 한층 돋보이게 만드는 장관으로 섬 여행객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가을꽃 천지 청정지역 조도면 판매도에서 추위의 가을여행에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세계인의 밥상 이제부터 한식이입니다.

세계적인 인류의 열풍은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이에 따른 한식의 위상을 높여 놓았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는 품격높은 한식문화의 조성과 우리음식의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식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올바른 식문화의 정립과 한식의 표준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한식의 세계화는 이루어 집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